

이은지 루카스집머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없음. 보스토크라는 사진 잡지에서 봄. 잡지 호가 ‘모두의 혼자’라는 주제였음. 글이 나오고 사진이 나오는데, 글쓰는 사람 따로 사진작가 따로임. 수필 내용 혼자일 때 제일 혼자가 아니다였음. 집에 혼자 있을 땐 나와 단둘이 있으므로 혼자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였음. 루카스집머만 사진중에 보스토크에 실린 사진은 이 사진이었는데, 우리가 보통 집에서 자기전에 하는 행동이 이런 행동이다. 이 사진에 대한 부연설명은 그닥 없었다. 작업노트에서는 ‘주로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찾아올 때 작업할 때 작업하지만 내가 초점을 맞추는 곳은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자리다. 빛과 어둠 사이의 대화는 내게 영감을 주며, 내 작업의 중요한 화두이다. 이를 통해 사진의 필수 요소로서의 빛과 순수한 형태로써의 어둠을 탐색하고자 한다. 라고 했음. 이 사람은 빛과 어둠에 대한 작업을 주로해. 내 생각엔 내가 제일 편하고 쉬어야 할 때 항상 핸드폰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이런 행동이 진짜 휴식의 행동일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웠고, 루카스집머만은 빛과 어둠에 대한 탐구를 계속 하면서 이런 작업을 했다는 게 치밀한 작업이라고 느껴졌다. 이작가가 본인이 고수한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이 스타일을 고수하면서 다양한 주제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똑똑하다고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한국에서 사진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작업은 처음부터 눈에 띄는 작업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쉽다. 이 사람은 92년생이고, 독일에서 태어났고, 바우하우스 대학교에서 비주얼커뮤니케이션을 공부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찍은 건지 잘 모르겠다. 조리개값도 높고, 셔터스피드가 느리면 사람이 흔들렸을텐데 하나도 안흔들림.

조명이 이렇게 될수가 있다. 빛을 쏜것같다. 사진 이쁘다. 뜨는작가냐?

잘 모르겠다. 여기에서 유명하다고 실어주는 것보다 많이 찾아보고 흥미로운 작가를 실어주는 식인 것 같다. 북 토크를 갔었는데, 사진작가를 찾을 때 좀 힘들게 의미가 좋아보여서 얘기를 하면 의미가 너무 많거나 의미없이 그냥 찍었다라고 답할 때 실망스럽다고 말했었다. 보스토크 잡지 정보가 좋은것같다. 사진전공이 아닌데 이렇게 찍은건가. 비주얼커뮤니케이션에 사진이 포함인가? 그런것같다. 문창 수업에서, 교수님이 어떤 작품이나 책을 보고 감상할 때 제일 성공적인 감상평이 다르게 상상되거나 혼자 느낄 수 있는 것. 작가가 굳이 말해주지 않아도 상상할 수 있는게 성공한 감상평이라고 했다. 단어가 갑자기 생각 안난다.

패러디?

응. 패러디가 많은게 명작이라고 하더라.

재밌네.

그쵸? 더 할 말 있으신가요. 생각나는거라도.

나는 이거 보고 넷플릭스 이미지가 떠올랐다. 분위기가 좀 비슷 한 것 같다.

어떤 넷플릭스?

그냥 넷플릭스 자체가 생각남
근데 넷플릭스 켜올 때 이런 느낌이 있다.
이런 느낌이다. 요즘 시각적으로 유행하는 스타일인가?

넷플릭스에서 쓰는 기본 배경이 검은색이고 스틸컷을 그냥 보여주면 안이빠서 어느정도 처리해서 보여줘서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닐까? 의도한 건 아닌 것 같다.

어쨌든 그랬다.

네.

백준열 내가 원래 이 사람에 대해 좀 알고 있었다. 그 때 알아봤을 때 좀 어려웠었다. 그리고 지나서 이번에 유럽에서 베니스 비엔날레에 이 사람 작품이 있었다. 다른 사람들 작품과 달리 접근방식이 달랐다. 관심을 갖고 찾아봐야겠다. 하다가 이번에 한 번 찾아보게 되었다.

설명좀 해주실래요?

저도 잘 모르고 어려워서 같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 내가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은 안되는 것 같다.

그래도 너의 생각을 말해주면 좋겠다.

일단, 디지털시대에 접어들고 나서 이미지라는 것을 많이 언급한다. 특히나 예술이나 철학 분야에서. 그런데 다 똑 같은 방식으로 이미지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보는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신기했다.

글이 너무 많아서 잘 모르겠다 빈곤한 이미지라는게 저화질 말하는 것인가? 저화질을

다르게 생각해서 말하는 건가? 퀄리티 문제가 아니고.

원본이 고화질이라고 하면 복제되고 편집된 걸 빈곤한 이미지라고 보는데 그냥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저화질이니까 취급도 안하고, 도외시 한다 해야하나? 그러는데 이 사람은 더 이상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다. 그리고 이게 원본이나 진짜냐 가짜냐 이 문제가 아니라, 가짜의 이미지가 가짜가 아니고 더 영향력 있다고 얘기하는거지.

왜지?

어려운 건 아닌 것 같다. 그런 이미지가 더 빨리 확산되고, 그 이미지가 대중들의 성격을 담아서 퍼져서 오히려 진짜 이미지보다 강력하다는 거지. 이 사람에 대한 책이 몇 권 있는데 번역한 사람이 두 명밖에 없어서 한국어로 된 정보가 별로 없다. 근데도 세계적으로는 영향력이 1 위다. 우리만 모르는거다.

우리만 몰라서 지금 우리 알아가고 있다.

회의감이 든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일본사람이다 그것도 특이하다.

문창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세계마다 베스트 셀러가 되는 기준이 있다고 했다. 미국은 휴머니즘 감동 선정성, 한국은 3s 가 있어야 하는데, 센세이셔널, 섹슈얼리티, 센티멘탈이었다. 그런데 일본은 그럴 필요가 없고 그냥 책을 내면 베스트셀러가 된다. 그 나라에서는 덕후가 많고, 어떤 걸 내면 관심이 많아서, 만약 책을 내면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읽어주고, 그걸 공감하는 군이 모여서 덕후가 되는 그런 문화가 강해서 책을 내면 베스트셀러가 된다고 했다. 그런 점에서 일본을 경계해야 한다, 일본은 작가상을 많이 타는 이유도 비슷한 맥락이다. 책이 나오면 그 책의 번역을 하루만에 하고, 그걸 또 빨리 읽어주고, 번역도 그만큼 잘 되어있다. 노력이 다르다. 맞다. 그런데 파고들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나은 게 한두가지가 아니다.

맞다. 그러니까 선진국이겠지. 경제적으로도 지난 20 년동안 잃어버린 20 년이라고 경제 발전이 없었다. 그때 우리가 듣는 시티팝시 들을 때 일본의 경제가 올라갈 때이고 그리고 20 년동안 경제가 불황이었는데, 이제 우리나라 차례여서 우리나라도 그런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사람들이 그러더라.

그러면 좋아지는 추세라는 건가?

좋아지는 추세라기 보다는 경제가 어려워지는 시기가 온거지. 출산률도 낮고, 취업도 안되고, 그런데 일본은 그 시기를 또 거쳐서 다시 취업률은 오르고 있다더라.

흠 어렵네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출산률 0.97 명 찍었더라. 세계 최초로 출산 한명 아래인 국가라더라.

일본은?

우리가 더 심한가봐. 한명도 안낳는거다. 결혼해서. 근데 이해는 돼. 얼마나 어려우면 그럴겠어. 다들 마음에 여유가 없는거잖아. 암울하네요.

네, 현실이에요.

(깊은한숨)

근데 바우하우스 영화 보는데, 처음에 춤추는 장면이 있다. 근데 나는 바우하우스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없었다. 그런데 춤을 추면서 공간의 수치를 춤으로 표현했는데 그게 정말 신기하고 새롭고, 그곳에서는 그렇게 배우나 싶고 그랬다. 그 곳에서는 파티를 할 때도 좀 신기한 방식으로 한다. 가면도 만들고 그러면서, 그걸 보는데 그 곳을 가면 정말 그렇게 교육하나 싶었다. 내가 알고 있던 교육이랑 너무 달랐다. 이렇게 다를 줄 몰랐다. 영상으로 보게된건 처음이어서 좀 더 그랬다. 또 영화에서 어떤 학교가 나오는데, 이름은 기억안난다. 학교를 지어달라고 했는데, 대신 교실이 없는 학교를 만들어달라고 했다. 학교 안에 높은 산이 있고 그 곳엔 앉을 수 있는 계단이 있다. 그 곳이 모이는 장소이고, 무대이고,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다. 산 안에는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노트북을 할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다. 그 뒤에는 친구들과 함께 영화를 보는 공간이 있다. 그 곳에서 공부를 하면 아이들이 자유롭고, 자기주도학습능력이 키워질 것 같았다. 선생님이 그렇게 명령하지 않아도. 그 건물 자체가 이미 그런 이유에 의해 만들어 진 거고 그런 공간에선 그 공간에 맞는 규칙이 필요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그런 학교가 있나? 생각하고 아쉬웠다.

내가 저번주에 '건축혁명'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도 공간 건축이 인간 성격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그냥 거의다 영향을 미칠 정도로.

우리가 높이 같은 걸 생각할 때 우리는 그냥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뇌가 인지하는 것은 손이
닿을 수 있는 거리보다 더 높으면 이 공간이 진짜
높고 자유롭다는 이미지를 갖는데.

영향 많이 받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책 쓴 사람은 그냥 지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맞다.

그런데 돈, 시간이 부족하고 그리고 그것을
신뢰해주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 지을 수가
없다. 특히 중국마을에서 어떤 시골마을에
10 만명이 살았는데, 10년 뒤에 800 만명이 사는
도시가 되어버렸다. 그 과정에서 그런 건물을
짓기가 힘들다. 빨리 지어야 하니까.

(바우하우스 이야기중)

준열: 바우하우스 자체도 공장제인 것 같다.
거기는 애초에 순수예술을 하려는 것보다
목적자체가 산업인 것 같다. 디자인을 잘 할 수
있는 최고의 인간을 만들자. 이런느낌?

아니면 방법이 달라서 새로운 결과물이 나온 걸
수도 있어. 우리도 이렇게 안하고 우리만의 방법을
찾아서 하면 또 다른 결과물이 나오겠지. 그걸 한
사람이 그 학교밖에 없나봐. 시대도 시대였고.

그리고서는 거기 교장들 미국으로 건너가서
교수됐잖아. 미스 반데어 로에도 바우하우스
선생님이었는데, 우리 수업에서 나온 사람. 그래서
바우하우스 성격을 미국에 있는 학교들이 받아서,
미국에 있는 학교가 유명한거고.,

일본에서 생활했던 기억이 영향을 많이 끼쳤나?

나는 알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당연히 영향을
끼쳤다. 유치원에서 교복입는 것부터가 다른데.

근데 이 사람이 빈곤한 이미지가 강력하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만약에 어떤 배우사진을 찰로
만들었을 때 그 이미지를 강력하게 해주고 그런게
생각났다. 변질되는 자체도 재밌고 또 다른 개성도
생기고 시대의 흐름 같다 그게. 그게 아무리
바뀌고 촌스러운 이미지로 바뀌더라도, 그게
모이면 그 시대를 어느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또 다른 얘기로 요즘은 일부러 저화질로 하고
그러지 않나

다큐 기록물 같은 것도 고화질로 잘 찍어서
보여주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게, 스마트폰으로 전쟁지역을
영상촬영하거나 드론촬영하거나, 노이즈끼인 사진을
보는데, 선명도 라는게 진실성과 이퀄이 아니다.
그래서 그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한다. 저화질
이미지도 충분히 진실을 전달하는 시대? 근데 이
사람의 결론을 모르겠다.

이런 거에서 주장을 확실히 하면, 본인도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본인이 생각하는 답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

이 사람 말은 그런 것 같다. 진실을 보여주는
다큐를 보여줄거면 그냥 본연 그대로 편집없이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편집 자체에 생각이 들어가는 것 같다.
편집 뿐만 아니라 촬영에서도 생각이 들어간다.

끝...